

2016 쪽방촌 거주자의 경제적 자립준비를 위한
자활지원프로그램 “행복한 동행”

- 생각나눔 욕구조사 보고서 -

- 목 차 -

I. 서론	
1. 복지관의 기본 현황	5
2.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8
3. 사업의 진행내용	9
II. 이론적 배경	13
III. 조사 방법	19
IV. 조사 분석	
1. 일반적 사항	23
2. 생활 사항	25
3. 설문지 응답	27
V. 요약 및 제언	
1. 조사 요약	47
2. 조사 한계점	49
3. 제언	50
VI. 설문지	51

1. 서론

1. 서론

1. 복지관의 기본 현황

■ 운영 목적

중립종합사회복지관은 중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소통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 운영 방향

Vision - 지역주민이 주체되는 소통과 나눔의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Mission - 즐겁게(Joy) 귀 기울여 경청하며(Listen) 지역사회를 위해(Community) 주민과 함께(With you) 소통하는(Communication) 중립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 기관 개요

기관명 : 중립종합사회복지관

소재지 : 서울 중구 서소문로6길 16(중림동 155-1)

운영법인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개관일 : 2012. 09. 20

시설장 : 이운희

주요사업

사업명	내용
사례관리사업	사례관리업무(사례 발굴/개입/자원연계), 자활지원사업
서비스제공사업	홍보사업,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아동, 성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가족지원센터 등
지역조직화사업	지역사회 조직 사업, 네트워크사업, 자원개발(후원, 봉사)사업, 지역주민 교육사업 등
총무기획사업	회계업무, 사회복지무요원관리, 시설관리 등

■ 지역적 특성

중립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 중구의 서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관할지역은 중립동, 회현동, 명동, 소공동으로 총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립동과 회현동은 많은 상업지구가 위치해있는 반면 쪽방촌, 고시원 등 불안정한 거주지가 밀집되어 있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가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쪽방촌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입, 퇴거를 반복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구분	합계	회현동			중림동
		남대문 경찰서 뒤	연세빌딩 뒤	기타	
합계	893	480	160	68	185
기초생활수급자	440	244	54	42	100
65세 이상 독거노인	275	158	34	22	61
장애인	143	106	19	5	13

<16년 쪽방밀집지역 전수조사계획>

■ 자활사업 관련 유관기관 현황

순번	기관명	진행사업
1	한사랑 가족 공동체	- 무료급식서비스(점심, 저녁) - 두부공장 운영 및 배달, 판매 - 상담/미술치료 등 프로그램 실시
2	남대문지역상담센터	- 공동작업장 '꽃피우다' 운영 - 밑반찬 및 경제적 지원 - 편의시설 운영(목욕, 세탁 등)
3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	- 시장진입형(청소, 제과제빵) - 사회서비스일자리형(집수리, 재활용품 수리 및 판매 등) - 자활기업/사회서비스 등
4	서울역쪽방상담소	- 상담사업, 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 지역사회보호사업(보건의료 및 급식지원, 주거 환경개선 등) - 자활사업(공동작업장 운영 등) - 특별사업(매입임대주택연계 등)
5	서울특별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 상담사업 - 응급생활보호사업(숙박, 무료급식 등) - 위생서비스(목욕, 세탁) 및 의료서비스 - 주거지원사업(임시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사업) - 일자리지원사업(자활근로, 새희망 고용지원센터 운영) - 중점추진사업(거리노숙인 지원)
6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노숙인 자활지원 및 사회복지지원 - 서울역무료급식소 운영 - 일시보호시설 운영 - 노숙인현황조사

2.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사업명 : 쪽방촌 거주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프로그램 “행복한 동행”

■ 사업의 필요성

서울시 쪽방건물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 있는 쪽방촌 거주자는 2011년 기준 729명(쪽방 737개)이며 2015년에는 958명(쪽방 1,051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노숙인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쪽방촌 거주자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노숙인’ 또는 ‘보이지 않는 노숙인’의 문제에 개입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수혜자로서 받는 서비스의 형태로 개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쪽방촌 거주자의 장기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 어려워 노숙으로 인하여 단절된 사회적 관계 회복, 성공적 경험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오랜 시간동안 사회 단절로 인해 발생된 심리적 열등감, 소외감 등을 해소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 재정착하기 위한 기회가 필요하다.

■ 사업의 목적

중립종합사회복지관은 2012년 개관 이후 관할지역인 회현동, 중림동에 밀집되어 있는 쪽방촌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서비스(도시락, 밑반찬), 경제적지원 서비스 등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쪽방촌 지역주민에게 단순 서비스로는 표면적인 욕구해결만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삶을 설계해 나아가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되어,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활지원프로그램 “행복한 동행”을 2016년부터 진행하게 되었다.

자활지원프로그램 “행복한 동행”을 준비 및 진행하면서 중도탈락, 건강상태에 의한 결석 등의 모습이 관찰되었고,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하지만 참여를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고시원, 쪽방촌 등 불안정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현황, 더 나은 삶을 위해 바라고 있는 것, 시도해본 노력 등에 알아보기 위해 ‘생각나눔 욕구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 욕구조사를 통해 2017년의 사업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3. 사업의 진행내용

■ 사업 개요

가. 대 상 : 중림동, 회현동 일대에 위치한 고시원, 쪽방촌 등 불안정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 7명

나. 기 간 : 2016년 9월 ~ 12월

다. 내 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건/명
선정회의	- 내부 대상자 선정회의 실시	2회/7명
오리엔테이션	- 전체 활동일정 및 담당자 소개 - 진로탐색검사(CIA) 실시	1회/2명
직업상담	- 직업상담사와 1:1 직업상담 실시(개인별 3회)	7회/3명
직업기술훈련	- 취업에 필요한 전문교육 실시 - 내용 : 구직활동 계획 수립방법, 직무별 이력서 작성법, 구직정보 사이트 활용법, 이력서 첨삭 및 예상 면접 대비 등)	5회/12명
멘토와의 만남	- 자활에 성공한 멘토의 성공 노하우 공유 -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	2회/8명
지역 네트워크	- 유관기관과 자활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등 논의를 위한 회의 실시 -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 중림동/회현동주민센터, 한사랑가족공동체 등	4회/15명
생각나눔 욕구조사	- 중림동, 회현동 일대에 위치한 고시원, 쪽방촌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 대상 욕구조사 실시 및 분석	104명

■ 월별 진행사항

월별	진행내용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준비 관련 기관방문 - 일자 : 2016.08.16.(화) - 방문기관 :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중구지역자활센터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지 및 홍보현수막 제작 ■ 홍보활동 실시 - 기간 : 2016.09.20.(화)~2016.10.27.(목) - 홍보처 : 중구청 사회복지과, 회현동주민센터 등 유관기관, 다림여인숙 등 인근 고시원 및 쪽방촌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접수상담 실시 ■ 내부 선정회의 실시 - 일자 : 2016.10.18.(화), 2016.11.11.(금) - 내용 : 신청자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여부 논의 및 총 7명 선정 ■ 오리엔테이션 실시 - 일자 : 2016.10.21.(금) - 내용 : 전체일정 안내, CIA진로탐색검사(성인용 성격/흥미/적성검사), 특강(취업성공자의 공통점)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상담 실시 - 기간 : 2016.11.09.(수)~2016.12.21.(수) - 내용 : 직업상담사와 1:1 개별상담 실시(개인별 3회) ■ 직업훈련기술 실시 - 기간 : 2016.11.11.(금)~2016.12.23.(금) - 내용 : 구직활동 계획 수립, 이력서 작성 및 면접대비 등(총 5회기)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나눔 욕구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 기간 : 2016.11.29.(화)~2016.12.02.(금) - 대상 : 중림동/회현동 인근 쪽방촌, 고시원 등 거주자 104명 ■ 멘토와의 만남 - 일자 : 2016.12.12.(월), 2016.12.19.(월) - 내용 : 중구지역자활센터, 남대문지역상담센터에서 자활에 성공한 지역주민과의 만남 ■ 지역사회 네트워크 실시 - 기간 : 2016.12.20.(월)~2016.12.28. - 참여기관 : 중림동/회현동주민센터, 남대문지역상담센터,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 한사랑가족공동체

II. 이론적 배경

II. 이론적 배경

■ 쪽방의 개념

'쪽방'을 정의할 때 지역주민의 특성, 외부의 지원 방식 등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며 그 외에 주거의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개념이 다르다.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 <표>¹⁾와 같다.

구분	개념정의	특징
한국도시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의 크기는 성인 한사람만이 잘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며 별도의 욕실이나 부엌과 같은 주거편의시설이 방마다 미비 - 거주자는 대체로 불안정하고 이동성이 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낮은 도시의 최빈곤층으로 단신가구 많음 - 대개 일세나 무보증월세로 운영되는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쪽방 시설 및 정의에 대한 기본안 제시 - 서울지역중심으로 파악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인근이나 역 근처에 위치 - 1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단신 생활자용 유료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쪽방의 입지와 면적, 숙박시설이라는 주거의 성격을 강조하는 정의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화장실, 세탁실, 취사실이 없어 숙박만 가능한 주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시설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취사실이 있어도 쪽방 유사형으로 간주(자가주택 포함)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신일 경우 0.5~3평 미만, 가족단위의 경우 1평 미만의 방에서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공간 등 여러 특성들을 중심으로 쪽방을 이해 - 거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를 중시

1) 대한주택공사(2005), 「쪽방주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구분	개념정의	특징
대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인 특성과 거주민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포괄하는 방식 - 일세 혹은 월세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개별취사, 세면, 용변 등의 기초적인 부대시설이 없는 방에 독신 혹은 가족단위로 일용직 등과 같이 이동이 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저렴한 거주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민의 직업적 특성을 정의에 반영
부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낡고 오래된 여관이나 여인숙 등이 보증금 없이 일세 또는 월세의 형태로 유지하는 주거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관이나 여인숙 중심 주택점유형태를 분명하게 명시 - 밀집지역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음

쪽방은 노숙 혹은 관련 시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으로 쪽방지역의 거주자 가운데 상당수가 노숙을 경험했으며 소득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다시 노숙을 할 수 있는 '잠재적 노숙자'이다. 또한 쪽방은 주거하향 이동을 경험하는 저소득층이 노숙이라는 극단적인 주거 빈곤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주거안정망 역할을 하고 있다.²⁾ 따라서 쪽방은 경제가 열악한 지역주민의 능력으로 입주가 가능한 주거공간으로써 자활 혹은 재활의 기회를 가능하게 하는 주거시설 역할을 하고 있는 최소한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 인적자본개발 모델로서의 자활

자활은 사전적 의미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 개념으로는 '수급자에게 벗어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자활은 '개인이 물질적, 사회적 빈곤과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고 사회주류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상태 또는 이를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

2) 채명진(2007), 「도심부 불량주택지구 거주실태 분석 및 주거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남택주(2016),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특성이 자활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자활효과는 '자활사업의 참여로 근로유지와 근로의욕을 향상하려는 근로동기의 부여'로 정의되며, 자활효과의 다양한 모델(노동시장연결모델, 인적자본개발 모델, 직업창출모델 등) 중 인적자본개발 모델은 취업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시킨 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를 얻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⁴⁾ 이는 조기 취업보다는 일반 교육, 직업교육, 구직 상담 등의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참여자의 자활을 촉진하고 근로의욕의 향상, 자립적인 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이며, 쪽방촌 거주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프로그램의 모델로써 적용하고자 한다.

4) 하미영(2002),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Ⅲ. 조사 방법

Ⅲ. 조사 방법

■ 조사범위

가. 생각나눔 욕구조사 기간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배포 및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나. 생각나눔 욕구조사는 관할 지역 중 중림동, 회현동에 위치한 쪽방촌,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로 진행하였다.

다. 생각나눔 욕구조사는 쪽방촌, 고시원 등 불안정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지역주민의 변화하고 싶은 욕구파악 및 시도해본 노력 등에 대한 분석결과로 구성하였다.

■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중림동, 회현동 내 쪽방촌 등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50부를 배포하여 104부를 수거하였다. 또한 104부 중 41부는 중림동 지역에서 수거하였고, 63부는 회현동에서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 조사 방법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으로 생각나눔 욕구조사에 참여하는 지역주민과 1:1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분석 방법

분석방법은 SPSS 통계 분석을 활용하였다.

IV. 조사 분석

1. 일반적 사항(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종교)

<표 1>

항목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성	92	89.0
	여성	11	11.0
	합계	103	100.0
연령대	70세 이상	21	20.2
	60세~69세	33	31.7
	50세~59세	32	30.8
	49세 이하	18	17.3
	합계	104	100.0
혼인상태	미혼	46	44.2
	기혼	11	10.6
	이혼	27	26.0
	사별	14	13.5
	기타	6	5.8
	합계	104	100.0
학력	무학	16	15.4
	초등학교 졸업	22	21.2
	중학교 졸업	21	20.2
	고등학교 졸업	34	32.7
	대학교 졸업 이상	11	10.6
	합계	104	100.0

<표 2>

항목	구분	빈도(명)	퍼센트(%)
종교	불교	7	6.7
	천주교	29	27.9
	기독교	29	27.9
	종교없음	34	32.7
	기타	5	4.8
	합계	104	100.0

자활지원프로그램 생각나눔 욕구조사는 중림동, 회현동 일대에 위치해 있는 고시원, 쪽방촌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5년 12월 서울시 쪽방건물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958명의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총 104명이 생각나눔 욕구조사에 참여하였다. 일반적 사항에 대한 분석은 <표 1>, <표 2>와 같다.

자활지원프로그램 생각나눔 욕구조사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성별은 남성 92명(89.0%), 여성 11명(11.0%)로 나타났다. 2015년 서울시 쪽방건물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별비율이 8:2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던 것을 볼 때 쪽방촌 등 불안정한 거주지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생각나눔 욕구조사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연령대는 '49세 이하' 18명(17.3%), '50세~59세' 32명(30.8%), '60세~69세' 33명(31.7%), '70세 이상' 21명(20.2%)으로 '60~69세'와 '50세~59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서울시 쪽방건물실태조사결과에서는 50대, 40대, 60대 순으로 연령별 분포 비율이 높았던 것을 볼 때 중림동/회현동 쪽방촌, 고시원 등에서는 5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이 생활하고 있으며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혼인상태로는 '미혼' 46명(44.2%), '이혼' 27명(27.0%), '사별' 14명(13.5%), '기혼' 11명(10.6%), '기타' 6명(5.8%) 순으로 나타났다. 젊었을 때부터 노숙생활을 시작했거나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이혼 후 홀로 지내게 되면서 미혼과 이혼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34명(3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졸업' 22명(21.2%), '중학교 졸업' 21명(20.2%), '무학' 16명(15.4%), '대학교 졸업 이상' 11명(10.6%)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무학이거나 초등·중학교 졸업이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의 졸업자가 43.3%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수의 고학력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주민의 종교에 대해서는 '종교없음'이 34명(3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각각 29명(27.9%), '불교' 7명(6.7%), '기타' 5명(4.8%) 순으로 나타났다.

2. 생활 사항(보호구분, 주거현황, 동거가족수, 주거사항)

<표 3>

항목	구분	빈도(명)	퍼센트(%)
보호구분	일반수급자	65	63.1
	조건부수급자	7	6.8
	차상위계층	3	2.9
	기타	28	27.2
	합계	103	100.0
주거현황	월세 20만원 미만	2	1.9
	월세 20만원~30만원 미만	93	89.4
	월세 30만원~40만원 미만	4	3.8
	월세 40만원 이상	1	1.0
	기타	4	3.9
	합계	104	100.0
동거가족수	1명	99	96.1
	2명	4	3.9
	합계	103	100.0

<표 4>

항목	구분	빈도(명)	퍼센트(%)
가족구성원	혼자	99	96.1
	부부	4	3.9
	합계	103	100.0

생활 사항에 대해서는 <표 3>, <표 4>와 같이 결과가 나타났으며 보호구분에 대한 응답은 '일반수급자' 65명(63.1%)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 28명(27.2%), '조건부수급자' 7명(6.8%), '차상위계층' 3명(2.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일반 저소득으로 고시원, 쪽방촌 등에 예상보다 많은 일반 저소득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주거현황으로는 '월세 20만원~30만원 미만' 93명(89.4%)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외에는 '월세 30만원~40만원 미만' 4명(3.8%), '월세 20만원 미만' 2명(1.9%), '응답 거부' 3명(2.9%), '월세 40만원 이상'과 '기타' 각각 1명(1.0%)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역이 중림동, 회현동 일대의 쪽방촌, 고시원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중림동, 회현동 일대의 쪽방촌,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지역주민의 동거가족수는 '1명' 99명(96.1%), '2명' 4명(3.9%) 순으로 나타났으며 쪽방촌, 고시원 등의 공간이 여럿이서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예상된다. 또한 가족구성원도 동일하게 '혼자' 99명(96.1%), '부부' 4명(3.9%) 순으로 조사되었다.

3. 설문지 응답

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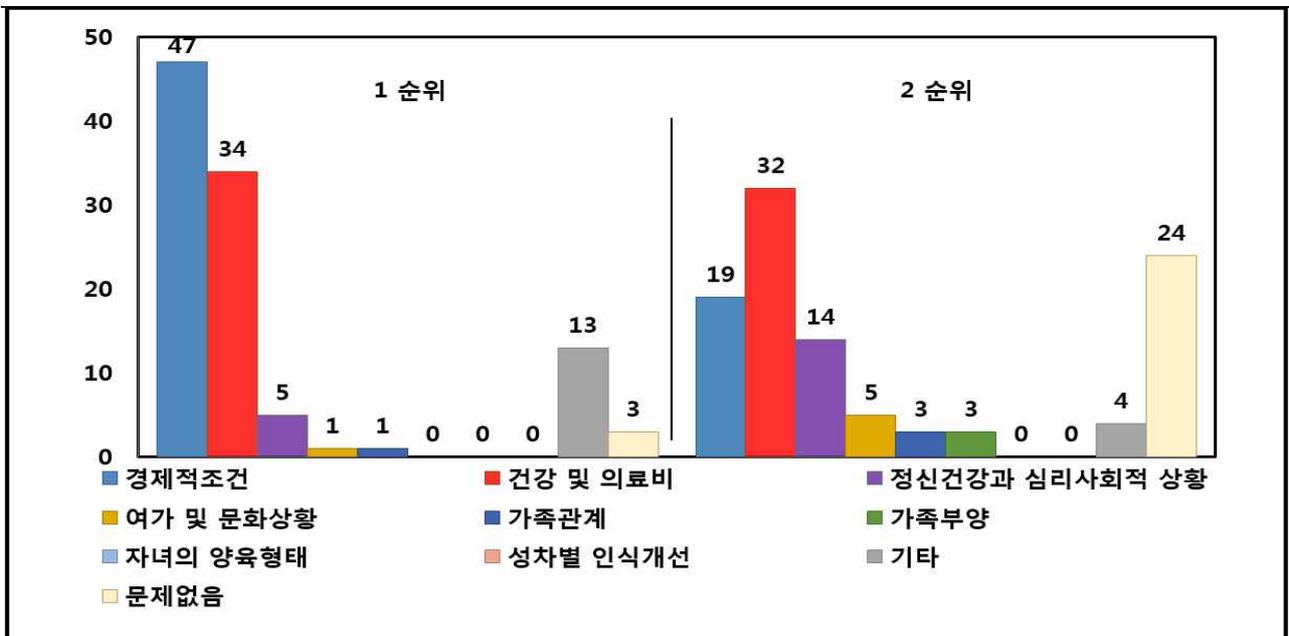
<표 5> 1순위

<표 6> 2순위

구분	빈도 (명)	퍼센트 (%)	구분	빈도 (명)	퍼센트 (%)
경제적 조건	47	45.2	경제적 조건	19	18.3
건강 및 의료비	34	32.7	건강 및 의료비	32	30.8
정신건강과 심리 사회적 상황	5	4.8	정신건강과 심리 사회적 상황	14	13.5
여가 및 문화생활	1	1.0	여가 및 문화생활	5	4.8
가족관계	1	1.0	가족관계	3	2.9
가족부양	0	0	가족 부양	3	2.9
기타	13	12.5	기타	4	3.8
특별한 문제없음	3	2.9	특별한 문제없음	24	23.1
합계	104	100.0	합계	104	100.0

중림동, 회현동 일대의 쪽방촌,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표 5>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은 '경제적 조건' 47명(4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그 다음으로는 '건강 및 의료비' 34명(23.7%), '기타' 13명(12.5%), '정신건강과 심리 사회적 상황' 5명(4.8%), '특별한 문제없음' 3명(2.9%), '여가 및 문화생활'과 '가족관계' 각각 1명(1.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순위로 선택한 응답은 '건강 및 의료비' 32명(30.8%)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조건' 19명(18.3%), '특별한 문제없음' 24명(23.1%), '정신건강과 심리 사회적 상황' 14명(13.5%), '여가 및 문화생활' 5명(4.8%), '기타' 4명(3.8%), '가족관계'와 '가족 부양'은 각각 3명(2.9%)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5> 1순위와 <표 6> 2순위를 모두 합쳤을 때 '경제적 조건'과 '건강 및 의료비'에 대한 응답이 각각 66명(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실직 및 퇴직, 미취업, 낮은 수입 등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상태에 의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기타' 응답으로는 식생활 개선을 위한 반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거주지의 환경 변화(욕실 등의 청결문제 등), 겨울대비, 물품지원(가스레인지), 이성친구 만들기, 공부하기로 응답하였다.

가-1. 보호구분별 삶의 변화가 필요한 영역

<표 7>

항목	구분	보호구분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삶의 변화가 필요한 영역	경제적 조건	23(35.4%)	5(71.4%)	3(100%)	15(53.6%)
	건강 및 의료비	25(28.5%)	1(14.3%)	-	8(28.6%)
	기타(가족관계 등)	15(23.1%)	1(14.3%)	-	4(14.3%)
	특별한 문제 없음	2(3.1%)	-	-	1(3.6%)
	합계	65(100.0%)	7(100.0%)	3(100%)	28(100.0%)

카이제곱검정(0.414)

보호구분별 삶의 변화가 필요한 영역은 <표 7> 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조건, 건강 및 의료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여가 및 문화생활 등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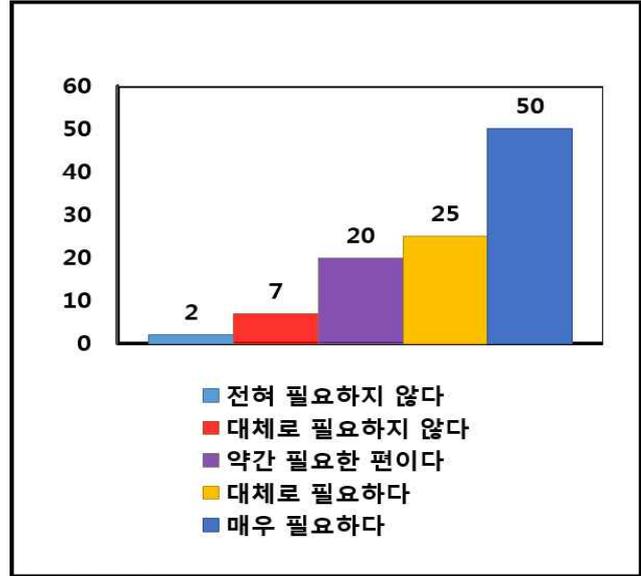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응답자 전체에 비해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삶의 변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경제적 조건'이라고 답변하였다.

나.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한 1순위에 대한 변화의 필요 정도

<표 8>

구분	빈도 (명)	퍼센트 (%)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1.9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7	6.7
약간 필요한 편이다	20	19.2
대체로 필요하다	25	24.0
매우 필요하다	50	48.1
합계	104	100.0

<그림 2>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선택한 1순위에 대한 변화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문항에서 '매우 필요하다' 50명(48.1%), '대체로 필요하다' 25명(24.0%), '약간 필요한 편이다' 20명(19.2%),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7명(6.7%), '전혀 필요하지 않다' 2명(1.9%) 순으로 응답하였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 전체의 91.3%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생각나눔 욕구조사 설문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나-1.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시도해본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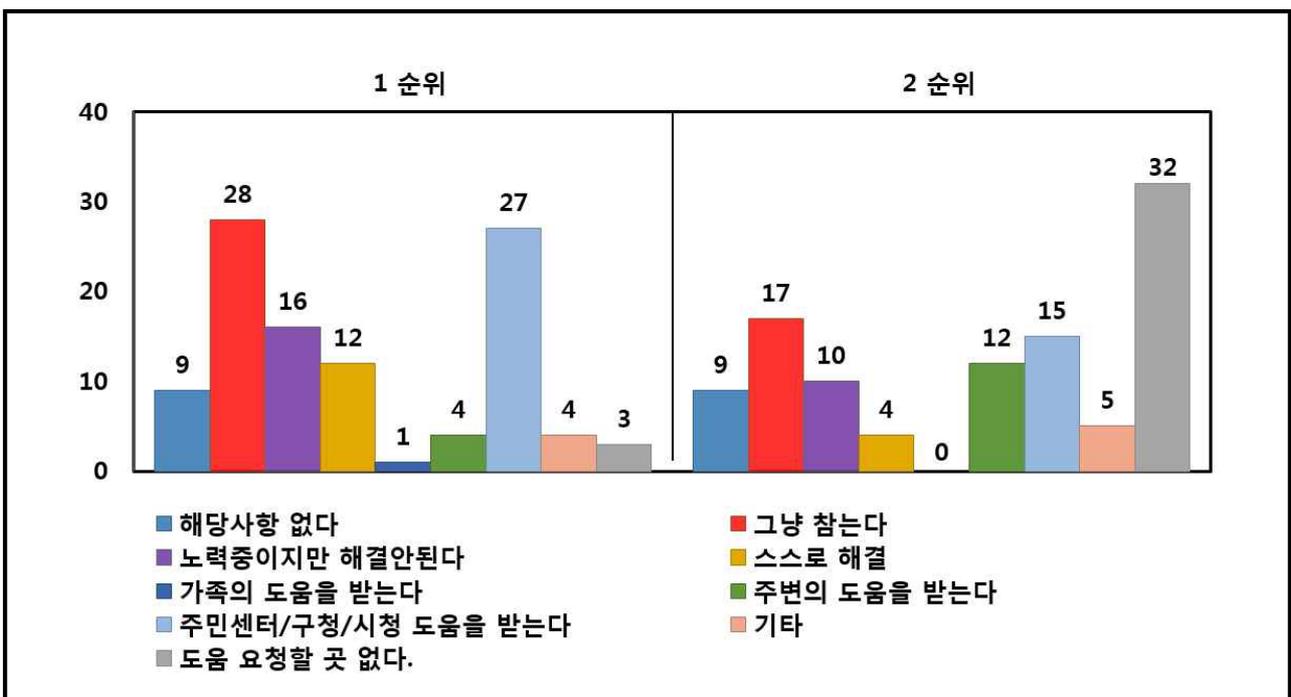
<표 9> 1순위

<표 10> 2순위

구분	빈도 (명)	퍼센트 (%)	구분	빈도 (명)	퍼센트 (%)
어렵지만 그냥 참고 있다	28	29.4	어렵지만 그냥 참고 있다	17	17.9
현재 노력중이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16	16.8	현재 노력중이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10	10.5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	12	12.6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	4	4.2
가족의 도움으로 해결한다	1	1.2	가족의 도움으로 해결한다	0	0
주변에 도움을 받는다	4	4.2	주변에 도움을 받는다	12	12.6
주민센터/구청/시청에서 도움을 받는다.	27	28.4	주민센터/구청/시청에서 도움을 받는다.	15	15.8
기타	4	4.2	기타	5	5.3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	3	3.2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	32	33.7
합계	95	100.0	합계	95	100.0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시도해본 노력에 대한 <표 9>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9명을 제외하고 '어렵지만 그냥 참고 있다'가 28명(29.4%)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림 3>



그 다음으로는 '주민센터/구청/시청에서 도움을 받는다' 27명(28.4%), '현재 노력중이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16명(16.8%),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 12명(12.6%), '주변에서 도움을 받는다'와 '기타'는 4명(4.2%),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 3명(3.2%), '가족의 도움으로 해결한다' 1명(1.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순위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 32명(33.7%), '어렵지만 그냥 참고 있다' 17명(17.9%), '주민센터/구청/시청에서 도움을 받는다' 15명(15.8%), '주변에 도움을 받는다' 12명(12.6%), '현재 노력중이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10명(10.5%), '기타' 5명(5.3%),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 4명(4.2%)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1순위와 <표 10> 2순위의 응답을 합쳐서 비교해볼 때 '어렵지만 그냥 참고 있다'가 45명(23.7%)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주민센터/구청/시청에서 도움을 받는다' 42명(22.1%), 세 번째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 35명(18.4%)로 나타났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체 응답자 중 91.3%가 응답한 것과 비교해볼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센터/구청/시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제외하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어렵지만 그냥 참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나-2. 연령대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시도해본 노력

<표 11>

항목	구분	연령대			
		49세 이하	50대	60대	70세 이상
더 나은 삶을 위해 시도해본 노력	참고 있거나 도움요청 할 곳이 없음	4(23.5%)	9(3.04%)	8(25.8%)	10(55.6%)
	주변의 도움 받음 (지인, 구청 등)	5(20.4%)	8(27.6%)	13(41.9%)	6(33.3%)
	스스로 해결 또는 시도 중이나 실패	8(47.1%)	12(41.4%)	2(11.1%)	2(11.1%)
	합계	17(100.0%)	29(100.0%)	31(100%)	18(100.0%)

카이제곱검정(0.174)

연령대별 더 나은 삶을 위해 시도해본 노력을 살펴보면 49세 이하와 50대의 경우 '스스로 해결해나가거나 현재 노력중이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로 각각 8명(47.1%), 12명(41.4%)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60대의 경우에는 '지인, 구청 등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가 13명(41.9%)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70세 이상의 경우 '어렵지만 참고 있거나 도움 요청할 곳이 없다'가 10명(55.6%)으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볼 때 50대 이하의 중장년층의 경우 다른 도움을 받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60대 이상부터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곳을 잘 알지 못하여 그냥 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3. 보호구분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시도해본 노력

<표 12>

항목	구분	보호구분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더 나은 삶을 위해 시도해본 노력	참고 있거나 도움요청 할 곳이 없음	20(33.9%)	1(16.7%)	-	10(38.5%)
	주변의 도움 받음 (지인, 구청 등)	27(45.8%)	1(16.7%)	1(33.3%)	3(11.5%)
	스스로 해결 또는 시도 중이나 실패	12(20.3%)	4(66.7%)	2(66.7%)	13(50.0%)
	합계	59(100.0%)	6(100.0%)	3(100%)	26(100.0%)

카이제곱검정(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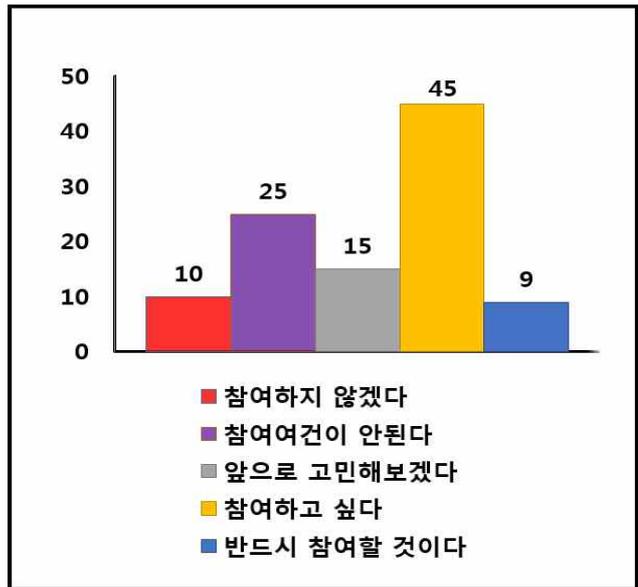
보호구분별 더 나은 삶을 위해 시도해본 노력의 결과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인, 구청 등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가 27명(45.8%)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는 '스스로 해결해나가거나 현재 노력중이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로 각각 4명(66.7%), 2명(66.7%), 13명(50.0%)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또한 일반 저소득에 해당되는 기타의 경우에는 '참고 있거나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는 변화 및 개선에 도움 되는 사업/프로그램 참여의향

<표 13>

구분	빈도 (명)	퍼센트 (%)
참여하지 않겠다	10	9.6
참여 여건이 안 된다	25	24.0
앞으로 고민해보겠다	15	14.4
참여하고 싶다	45	43.3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9	8.7
합계	104	100.0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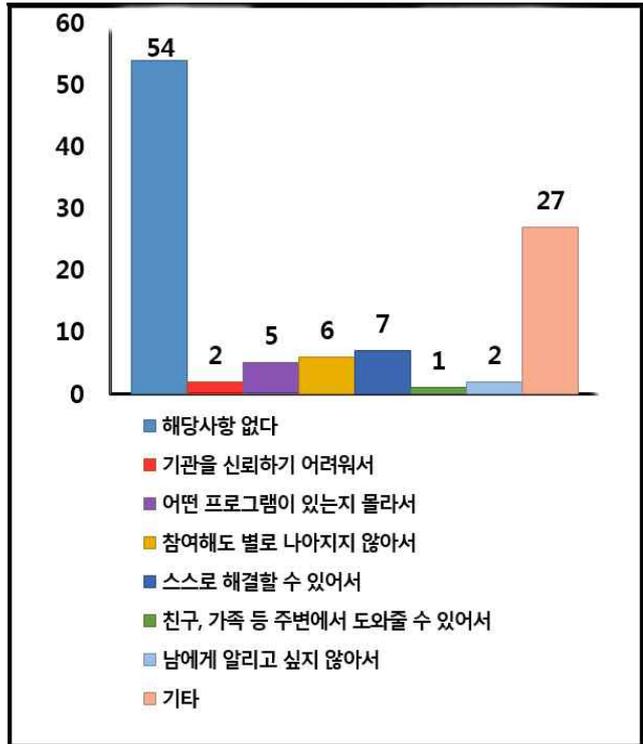
원하는 변화와 관련하여 그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된다면 참여 혹은 요청할 의향 여부에 대한 응답은 '참여하고 싶다' 45명(43.3%), '참여 여건이 안 된다' 25명(24.0%), '앞으로 고민해보겠다' 15명(14.4%), '참여하지 않겠다' 10명(9.6%),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9명(8.7%),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1.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

<표 14>

구분	빈도 (명)	퍼센트 (%)
기관을 신뢰하기 어려워서	2	4.0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몰라서	5	10.0
참여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6	12.0
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	7	14.0
친구, 가족 등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어서	1	2.0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2	4.0
기타	27	54.0
합계	50	100.0

<그림 5>



원하는 변화와 관련하여 그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더라도 참여 또는 요청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한 54명을 제외하고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기타' 27명(54.0%)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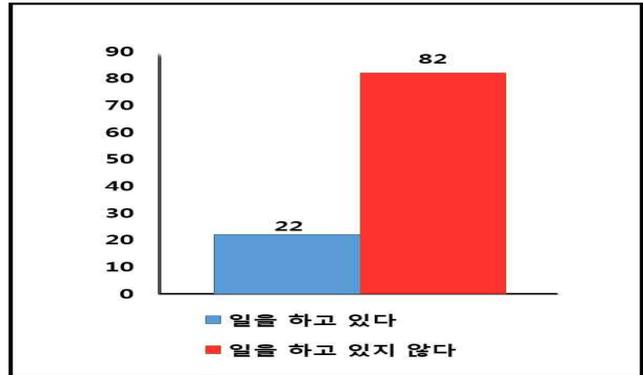
'기타'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는 응답은 '기타' 응답자 27명 중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는 기관에 참여할 때 절차와 시간소요에 부담이 돼서, 애물단지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여서, 특별히 이유가 없거나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 7명(14.0%), '참여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6명(12.0%),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몰라서' 5명(10.0%), '기관을 신뢰하기 어려워서'와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는 각각 2명(4.0%), '친구, 가족 등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어서' 1명(2.0%) 순으로 나타났다.

라. 현재 일에 대한 여부

<표 15>

구분	빈도 (명)	퍼센트 (%)
일을 하고 있다	22	21.2
일을 하고 있지 않다	82	78.8
합계	104	100.0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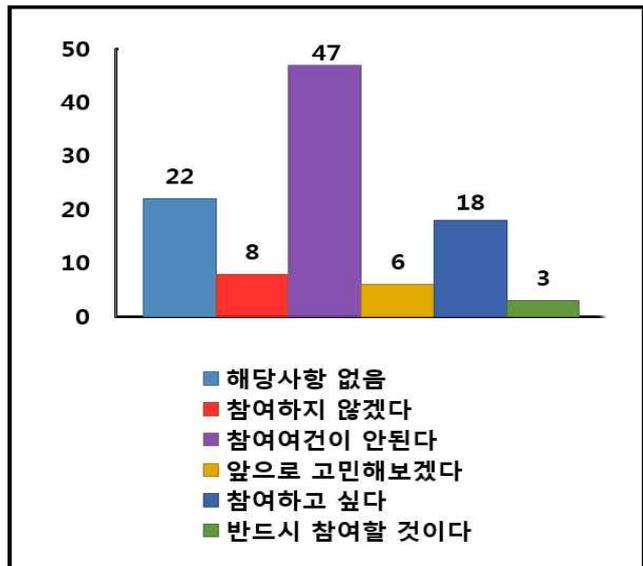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는 '일을 하고 있다' 22명(21.2%), '일을 하고 있지 않다' 82명(78.8%)으로 생각나눔 욕구조사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상당수가 일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1. 취업/자활프로그램 참여 의향 확인

<표 16>

구분	빈도 (명)	퍼센트 (%)
참여하지 않겠다	8	9.8
참여 여건이 안 된다	47	57.3
앞으로 고민해보겠다	6	7.3
참여하고 싶다	18	21.9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3	3.7
합계	82	100.0

<그림 7>



생각나눔 욕구조사에 참여한 지역주민 중 현재 일을 하고 있는 22명을 제외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취업/자활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참여 여건이 안 된다' 47명(57.3%)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참여하고 싶다' 18명(21.9%), '참여하지 않겠다' 8명(9.8%), '앞으로 고민해보겠다' 6명(7.3%),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3명(3.7%)로 응답하였다. 취업/자활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21명(25.6%)를 제외하고 참여 여건이 되지 않아서 취업/자활프로그램에 대한 참여할 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1-1. 연령대에 따른 취업/자활프로그램 참여의향

<표 17>

구분	연령대			
	49세 이하	50대	60대	70세 이상
취업/자활프로그램 참여의향	12(14.6%)	25(30.5%)	27(32.9%)	18(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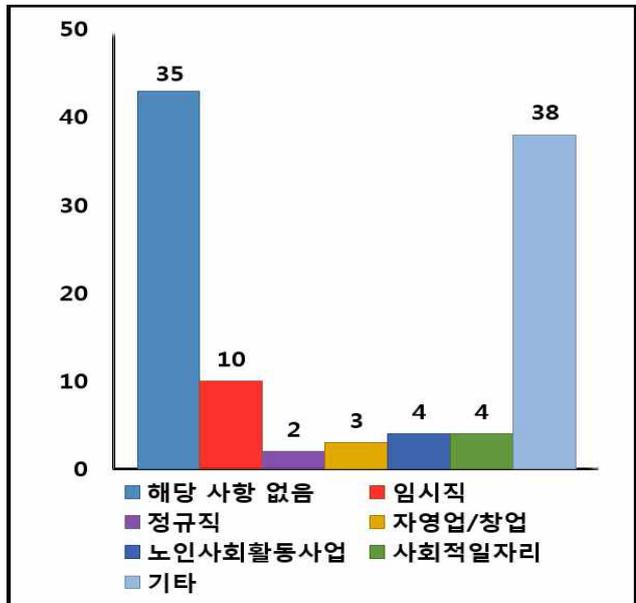
연령대에 따른 취업/자활프로그램 참여의향의 경우 '60대'가 27명(32.9%)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대'가 25명(30.5%)으로 취업/자활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2. 취업/자활프로그램 참여를 고민하는 이유

<표 18>

구분	빈도 (명)	퍼센트 (%)
취업 가능한 직종이 없을 것 같아서	3	4.9
질병, 장애 등의 어려움	43	70.5
대인관계의 어려움	1	1.6
별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2	3.2
기타	12	19.8
합계	61	100.0

<그림 8>



생각나눔 욕구조사에 참여한 지역주민 중 현재 일을 하고 있는 22명과 취업/자활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힌 21명을 제외하고 취업/자활프로그램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질병,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43명(70.5%)이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12명(19.8%), '내 역량 부족으로 취업 가능한 직종이 없을 것 같아서' 3명(4.9%),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2명(3.2%), '취업을 해도 상사 또는 동료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1명(1.6%)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응답을 선택한 12명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참여하기 힘들다고 4명이 선택하였으며 3명은 고령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는 한국어를 잘 못해서, 노동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알코올 문제 때문에 등으로 답변하였다.

라-2-1. 연령대별 취업/자활프로그램 참여를 고민하는 이유

<표 19>

항목	구분	연령대			
		49세 이하	50대	60대	70세 이상
취업/자활 프로그램 참여를 고민하는 이유	취업 가능한 직종이 없어서	3(42.9%)	-	-	-
	질병, 장애 등의 어려움	3(42.9%)	14(87.5%)	16(69.6%)	10(66.7%)
	대인관계의 어려움	-	-	1(14.3%)	-
	별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	-	2(8.7%)	-
	기타	1(14.3%)	2(12.5%)	4(17.4%)	5(33.3%)
	합계	7(100.0%)	16(100.0%)	23(100%)	15(100.0%)

연령대별 취업/자활프로그램 참여를 고민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40대의 경우에는 '취업 가능한 직종이 없어서'와 '질병, 장애 등의 어려움'이 각각 3명(42.9%)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50대와 60대, 70세 이상 모두는 '질병, 장애 등의 어려움'이 각각 14명(87.5%), 16명(69.9%), 10명(66.7%)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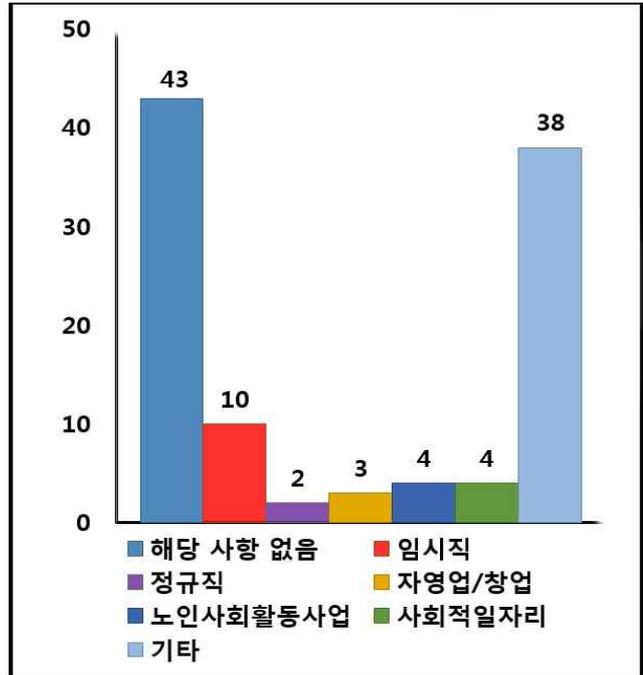
중림동/회현동 일대의 고시원, 쪽방촌 등에서 생활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경제적 조건과 건강 및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질병, 장애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이나 자활에 도움 되는 활동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3. 원하는 취업 형태

<표 20>

구분	빈도 (명)	퍼센트 (%)
임시직	10	16.4
정규직	2	3.2
자영업/창업	3	4.9
노인사회활동 사업	4	6.6
사회적 일자리	4	6.6
기타	38	62.3
합계	61	100.0

<그림 9>



생각나눔 욕구조사에 참여한 지역주민 중 현재 일을 하고 있는 22명과 취업/자활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힌 21명을 제외하고 원하는 취업형태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기타'가 38명(62.3%)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외에는 '임시직' 10명(16.4%), '노인사회활동'과 '사회적 일자리' 각 4명(6.6%), '자영업/창업' 3명(4.9%), '정규직' 2명(3.2%)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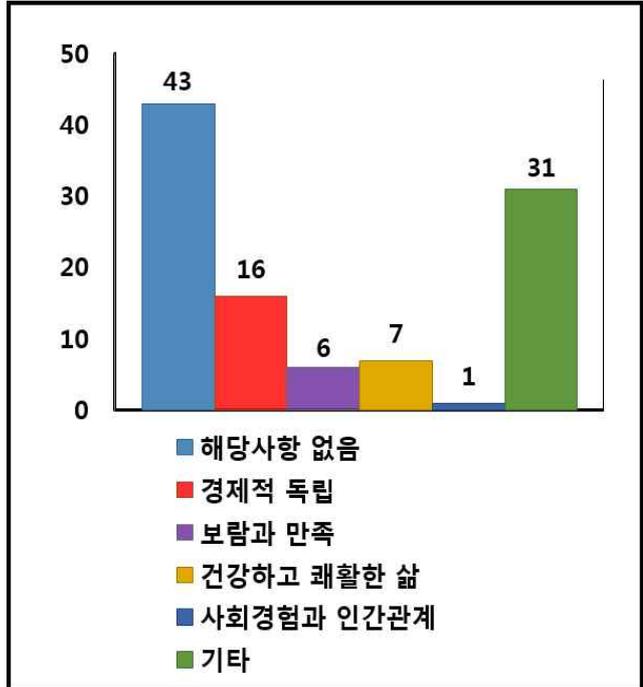
'기타' 응답에는 응답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하거나 건설용역, 무엇이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어떤 형태의 취업을 원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라-4. 일하기 원하는 이유

<표 21>

구분	빈도 (명)	퍼센트 (%)
해당사항 없음	43	41.3
경제적 독립	16	15.4
보람과 만족	6	5.8
건강하고 쾌활한 삶	7	6.7
사회경험과 인간관계	1	1.0
기타	31	29.8
합계	61	100.0

<그림 10>



현재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 '기타'가 31명(29.8%)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독립' 16명(15.4%), '건강하고 쾌활한 삶' 7명(6.7%), '보람과 만족' 6명(5.8%), '사회경험과 인간관계' 1명(1.0%)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기타' 응답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비워둔 경우가 많았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응답에서도 경제적 조건, 건강 및 의료비에 대한 응답이 컸던 것처럼 일하기 원하는 이유도 경제적 독립과 건강하고 쾌활한 삶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가장 행복했었던 경우

<표 22> 1순위

구분	빈도 (명)	퍼센트 (%)
무응답	6	5.8
일을 성취하거나 승진했을 때	11	10.6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7	6.7
칭찬하거나 말을 들어줬을 때	1	1.0
일을 하거나 돈을 벌었을 때	15	14.4
무언가를 샀을 때	1	1.0
건강했을 때나 젊었을 때	27	26.0
연애 또는 사랑하는 사람	5	4.8
가족이 화목하거나 함께할 때	12	11.5
친구와 만나거나 사이좋을 때	4	3.8
자녀가 효도할 때	1	1.0
손자녀 돌볼 때	1	1.0
기타	13	12.5
합계	104	100.0

<표 23>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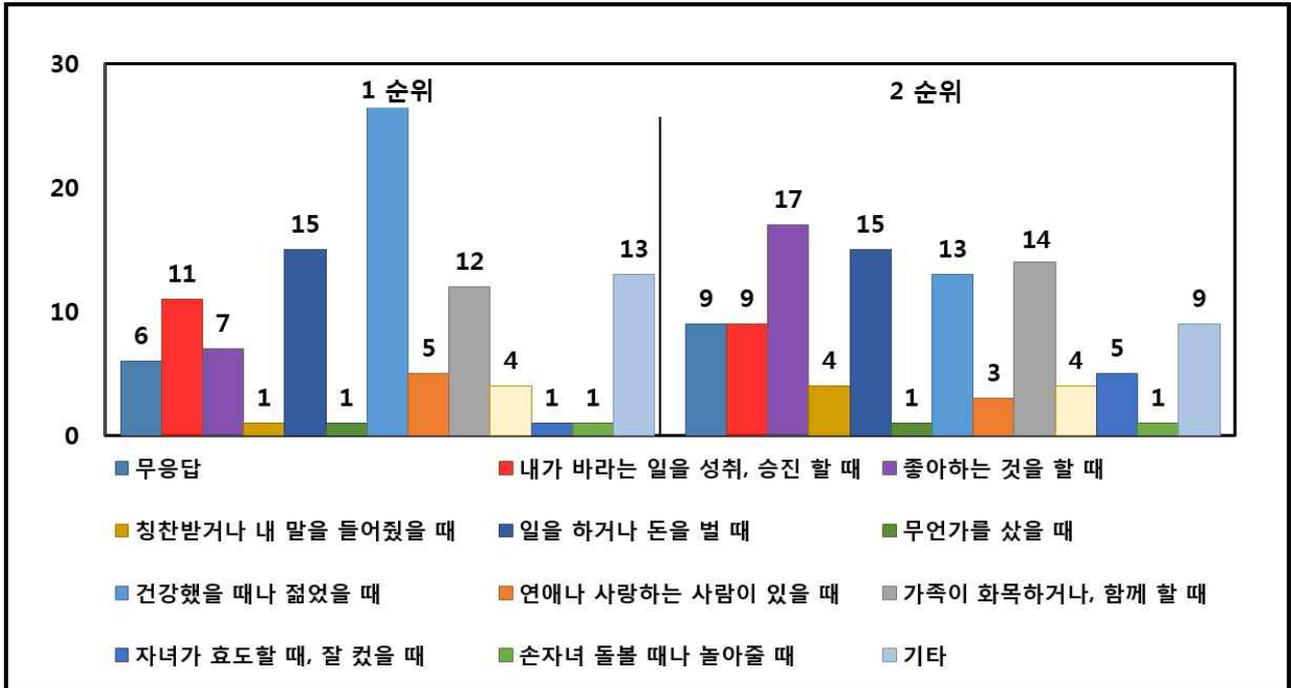
구분	빈도 (명)	퍼센트 (%)
무응답	9	8.7
일을 성취하거나 승진했을 때	9	8.7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17	16.3
칭찬하거나 말을 들어줬을 때	4	3.8
일을 하거나 돈을 벌었을 때	15	14.4
무언가를 샀을 때	1	1.0
건강했을 때나 젊었을 때	13	12.5
연애 또는 사랑하는 사람	3	2.9
가족이 화목하거나 함께할 때	14	13.5
친구와 만나거나 사이좋을 때	4	3.8
자녀가 효도할 때	5	4.8
손자녀 돌볼 때	1	1.0
기타	9	8.7
합계	104	100.0

생각나눔 욕구조사에 참여한 지역주민 중 가장 행복했었던 때는 '건강했을 때나 젊었을 때'가 27명(26.0%)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일을 하거나 돈을 벌었을 때' 15명(14.4%), '기타' 13명(12.5%), '가족이 화목하거나 함께 할 때' 12명(11.5%), '내가 바라는 일을 성취하거나 승진했을 때' 11명(10.6%),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7명(6.7%), '연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5명(4.8%), '친구들과 만나거나 사이가 좋을 때' 4명(3.8%) 순으로 나타났으며 '누가 나를 칭찬하거나 내 말을 들어줄 때', '집, 차, 명품 등 무언가를 샀을 때', '자녀가 효도할 때, 잘 컸을 때', '손자녀를 돌볼 때, 같이 놀아줄 때'는 각 1명(1.0%)씩 응답하였다.

또한 2순위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17명(16.3%)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일을 하거나 돈을 벌었을 때' 15명(14.4%), '가족이 화목하거나 함께 할

때' 14명(13.5%), '건강했을 때나 젊었을 때' 13명(12.5%), '건강했을 때나 젊었을 때' 13명(12.5%), '내가 바라는 일을 성취하거나 승진했을 때'와 '기타' 각각 9명(8.7%), '자녀가 효도할 때, 잘 컸을 때' 5명(4.8%), '누가 나를 칭찬하거나 내 말을 들어줄 때' 4명(3.8%), '연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3명(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 차, 명품 등 무언가를 샀을 때'와 '손자녀를 돌볼 때, 같이 놀아줄 때'는 각 1명(1.0%)씩 응답하였다.

<그림 11>



<표 22> 1순위와 <표 23> 2순위의 응답률을 비교해보면 '건강했을 때나 젊었을 때'에 대한 응답이 40명(20.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을 하거나 돈을 벌었을 때' 30명(15.5%), '가족이 화목하거나 함께 할 때' 26명(13.5%),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24명(12.4%), '기타' 22명(11.4%)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응답에는 '후원중인 아동들이 나를 반겨줄 때', '경제적 곤란을 제외하면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한다', '행복했던 것을 떠올리기 힘들다', '남들과 더불어 사랑하고 사는 것', '동료들과 일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건강하고 주변 환경이 나아졌을 때', '남들에게 인정받을 때', '학교에 다녔을 때', '경제적으로 넉넉했을 때' 등으로 자유롭게 답변하였다.

바. 올해 해보고 싶은 것과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것

올해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건강을 회복/유지하는 것(위암, 알코올중독 등)'이라고 24명이 응답하였다. 또한 '생계를 위한 일자리(일용직)를 구하는 것' 8명, '기부/봉사활동하기' 4명, '새집마련하기, 컴퓨터 배우기, 술 끊기, 개인사업하기'에는 각각 2명씩 응답하였다. 그 외에는 보유자격증(요양보호사)를 활용한 취업하기, 밥 잘 먹고 건강해지기, 폐지수집에 쓰이는 손수레 등 경제활동을 위한 도구마련하기,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되기, 신발 및 가방사기, 치과 진료 받기, 오래 살기, 이성친구 만들기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하기(사업/취업하기)'라고 12명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해지기' 11명, '컴퓨터, 운동 등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공부하기' 9명, '고시원이 아닌 새집으로 이사하기' 5명, '기부/봉사하기' 4명, '귀농하기' 3명이 응답하였다. 그 외에는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이 잘 되기, 새로운 물건 사기, 다리가 나으면 돈을 벌어서 전동휠체어 사기, 나가서 활동하기 등으로 응답하였다.

V. 요약 및 제언

V. 요약 및 제언

1. 조사 요약

■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자활지원프로그램 생각나눔 욕구조사는 중립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위치한 중림동, 회현동 일대에 위치해 있는 고시원, 쪽방촌 등 불안정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자활지원프로그램 생각나눔 욕구조사 응답자 104명 중 남자 92명(89.0%), 여자 11명(11.0%)으로 남성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의 경우 '60세~69세' 33명(31.7%)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50세~59세' 32명(30.8%), '70세 이상' 21명(20.2%), '49세 이하' 18명(17.3%) 순으로 응답하였다.

생각나눔 욕구조사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미혼' 46명(44.2%), '이혼' 27명(27.0%), '사별' 14명(13.5%), '기혼' 11명(10.6%), '기타' 6명(5.8%)으로 '미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나눔 욕구조사의 응답자 중에서는 '남성'이 가장 많고 노년기가 시작되는 '60~69세'의 연령대가 많이 응답하였다. 또한 중림동, 회현동 일대에 위치해 있는 고시원, 쪽방촌 등에서는 '미혼'과 '이혼'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림동, 회현동 일대에 위치한 불안정한 거주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성이 많이 거주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며 주로 사업실패 등의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서 서울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쪽방촌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예상된다.

다음으로 생각나눔 욕구조사의 응답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34명(32.7%), '초등학교 졸업' 22명(21.2%), '중학교 졸업' 21명(20.2%), '무학' 16명(15.4%), '대학교 졸업 이상' 11명(10.6%)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 응답자 전체의 43.3%인 것을 볼 때 상당수의 고학력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는 '종교없음'이 34명(3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각각 29명(27.9%), '불교' 7명(6.7%), '기타' 5명(4.8%) 순으로 조사되었다.

■ 응답자의 생활 사항

자활지원프로그램 생각나눔 욕구조사 응답자 중 '일반수급자'가 65명(63.1%)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 28명(27.2%), '조건부수급자' 7명(6.8%), '차상위계층' 3명(2.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일반 저소득으로 고시원, 쪽방촌 등에 예상보다 많은 일반 저소득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일

반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 체계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사각지대'라고 판단된다.

생각나눔 욕구조사 응답자의 주거현황은 '월세 20만원~30만원 미만', '월세 30만원~40만원 미만' 4명(3.8%), '월세 20만원 미만' 2명(1.9%), '응답거부' 3명(2.9%), '월세 40만원 이상'과 '기타' 각각 1명(1.0%) 순으로 '월세 20만원~3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역이 중림동, 회현동 일대의 쪽방촌, 고시원 등으로 지정되어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주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보통 월세의 경우 3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나눔 욕구조사 응답자의 동거가족수와 가족구성원은 '1명/혼자'가 99명(96.1%)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2명/부부'로 4명(3.9%)이 응답하였다. 고시원, 쪽방촌 등 단칸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거환경에 의해 1명 또는 2명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 중림동, 회현동 일대 쪽방촌 등 지역주민의 해결하고 싶은 것

중림동, 회현동 일대의 쪽방촌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변화로 꼭 필요한 것에 대해 '경제적 조건'과 '건강 및 의료비'로 각각 66명(40.2%)이 응답하였다. 또한 더 나은 삶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91.3%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시도해본 노력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그냥 참고 있다'가 45명(2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주민센터/구청/시청에서 도움을 받는다' 42명(22.1%), 세 번째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 35명(18.4%)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주민센터, 구청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외에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그냥 참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하는 변화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참여 의향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54명(52%)으로 나타났으며, 일을 하지 않는 응답자 중 자활/취업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21명(25.6%)으로 나타났다.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의향이 없는 경우는 질병, 장애 등의 건강상의 문제, 어려움으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올해 해보고 싶은 것과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도 경제적 조건(취업, 사업 등), 건강에 대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싶더라도 건강상태 등의 여건으로 인해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여서 지속적으로 악순환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2. 조사 한계점

자활지원프로그램 생각나눔 욕구조사는 중립종합사회복지관의 관할지역인 중림동, 회현동 일대의 쪽방촌, 고시원 등 불안정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욕구 상태 등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할 때 반영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하지만 중림동, 회현동 일대의 쪽방촌,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3. 제언

자활지원프로그램 생각나눔 욕구조사를 통해 중림동, 회현동 일대의 쪽방촌,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현재 상태, 바라는 것 등을 확인하였고, 앞으로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과 사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더 나은 삶을 위해 변화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조건'과 '건강 및 의료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건강상태 등에 의해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중림동, 회현동 쪽방촌 등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림동, 회현동의 쪽방촌 등에서는 전체적으로 알코올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장애 등 신체적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역량강화, 자활 연계 등의 서비스 제공에 앞서 자활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알코올 관리 등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 및 연계하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주민의 욕구 파악 및 개입 필요

중림동, 회현동 일대의 쪽방촌, 고시원 등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외에 많은 저소득 주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개입을 위한 욕구파악이 필요하며, 직접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취업/자활에 대한 기회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타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교육, 자활연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저소득 주민을 중심으로 경제적 활동을 위한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활동을 기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I. 설 문 지

생각나눔 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중구 내 중림동, 회현동, 명동, 소공동 지역주민의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2012년에 개관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쪽방촌, 고시원 등 불안정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중림종합사회복지관과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면 좋을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는 지역주민의 생활 실태 및 욕구를 조사하여 앞으로의 방향 설정 및 신규 사업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통계처리 되기 때문에 설문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통계법 12조에 의거하여 응답에 따른 비밀이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중림종합사회복지관장 이 운 희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서울 중구 서소문로 6길 16
TEL: (02)362-3348~51 FAX: (02)362-3352

조사 번호		조사 일시		조사원		코딩		입력	
----------	--	----------	--	-----	--	----	--	----	--

* 다음은 응답하시는 분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사항에 V 표시하거나 적어주세요.

1)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2)나 이	만()세
3) 혼인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기타_____		
4) 학 력	① 무학 ② 초졸이하 ③ 중졸이하 ④ 고졸이하 ⑤ 대졸이상		
5) 종 교	① 불교 ② 천주교 ③ 기독교 ④ 종교 없음 ⑤ 기타_____		
6) 보호구분	① 일반 수급자 ② 조건부 수급자 ③ 차상위 ④ 기타_____		
7) 주거현황	① 월세(보증금_____만원, 세_____만원) ② 전세(_____만원) ③ 무료임대 ④ 자택(_____만원) ⑤ 기타_____		
8) 동거가족수	()명 (응답자를 포함한 전체가족수)		
9) 가족구성	① 혼자 ② 부부 ③ 부부 + 자녀 ④ 조부(모)+부부+자녀 ⑤ 한부모 + 자녀 ⑥ 조부(모)+손자녀 ⑦ 기타_____		

1. 귀하의 기준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우선 순위별로 2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 1순위 _____번 (2) 2순위 _____번

- ① 경제적 조건(실직 및 퇴직, 미취업, 낮은 수입, 과도한 부채 등)
- ② 건강 및 의료비(본인 및 가족의 중증 이상 질병 발병에 의한 의료 문제, 비용부담 등)
- ③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상황(삶의 의욕 상실, 우울증, 사회적 차별 등)
- ④ 여가 및 문화생활
- ⑤ 가족 관계(가족 불화, 대화단절 등 불화·갈등 등)
- ⑥ 가족 부양(환자, 거동불편 어르신, 장애인 등)
- ⑦ 자녀의 양육형태(자녀의 학습 부진, 자녀 교육비 지출 과다, 자녀의 비행 등)
- ⑧ 성차별 인식 개선(양육/가사의 부담, 피부나 외모 차별, 문화 및 언어 차별 등)
- ⑨ 기타(내용: _____)
- ⑩ 특별한 문제 없음

2. 위 1번 문항에서 1순위로 선택한 상황에 대한 변화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3번으로 이동
- ③ 약간 필요한 편이다 ④ 대체로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 2-1번으로 이동

2-1.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시도하고 계신가요? 우선순위별로 2가지만 응답
 해주세요 (1) 1순위 _____번 (2) 2순위 _____번

- ① 어렵지만 그냥 참고 있다
- ② 현재 노력중이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 ③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저축, 일 등)
- ④ 가족의 도움으로 해결한다
- ⑤ 주변에 도움을 받는다(친구, 종교 등)
- ⑥ 주민센터/구청/시청에서 도움을 받는다
- ⑦ 기타(내용: _____)
- ⑧ 도움 요청할 곳이 없다

3. 귀하는 귀하가 원하는 변화와 관련하여 그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된다면 참여(혹은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참여하지 않겠다
- ② 참여 여건이 안 된다
- ③ 앞으로 고민해보겠다 ☞ 3-1번으로 이동
- ④ 참여하고 싶다
- ⑤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 4번으로 이동

3-1.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관을 신뢰하기 어려워서
- ②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몰라서
- ③ 참여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 ④ 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
- ⑤ 친구, 가족 등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어서
- ⑥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 ⑦ 기타(내용: _____)

4.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일을 하고 있다 ☞ 5번으로 이동
- ② 일을 하고 있지 않다 ☞ 4-1번으로 이동

4-1. 취업/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참여하지 않겠다
- ② 참여 여건이 안 된다
- ③ 앞으로 고민해보겠다 ☞ 4-2~4-4번으로 이동
- ④ 참여하고 싶다
- ⑤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 5번으로 이동

4-2. 취업/자활프로그램 참여를 고민하는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취업을 해도 낮은 임금수준, 임시직 등의 직업환경으로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 ② 내 역량(학력, 자격증 등) 부족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이 없을 것 같아서
- ③ 질병,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 ④ 취업을 해도 상사 또는 동료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 ⑤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 ⑥ 기타(내용: _____)

**2016 쪽방촌 거주자의 경제적 자립준비를 위한
자활지원프로그램 “행복한 동행” 생각나눔 욕구조사 보고서**

발 행 일 : 2016년 12월 1판 1쇄
 : 2020년 9월 2판 1쇄
발 행 처 :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발 행 인 : 이 운 희
편 집 인 : 김상균, 오은주
주 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6길 16
전 화 : 02-362-3348~51
팩 스 : 02-362-3352
홈페이지 : <http://www.jlcwc.or.kr/>